



초등학교 1학년 초기문해력 교육 안내

♣ 교무실 465-8101 ♣ 행정실 465-8102 ♣ FAX 465-8141



<http://ksnaun.es.kr>

“선생님과 찬찬히 배우는 한글, 가정에서도 함께 응원해주세요.”

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님은 기대와 두려움을 함께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. 누구나 처음에는 서툴고 잘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. 갓 입학한 1학년 어린이가 어른들과 같은 수준으로 한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 것도 당연합니다.

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**초등 신입생이 한글을 배우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한글교육을 실시**하도록 지원합니다.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한글 책임교육이 강조되어 한글교육 시간이 1, 2학년 총 68시간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. 우리 학교에서는 삶을 가꾸는 읽기와 쓰기 교육의 기초인 한글을 다양한 방법으로 흥미롭게 배울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.

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사랑스런 어린 자녀들이 한글 학습에 대한 부담을 덜고 학교생활에 신나게 적응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협력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♣ 1학년 담임 선생님의 관찰과 지도 방침을 존중해주세요.

담임 선생님은 아이를 가장 잘 아는 분임을 믿고 협력해주세요.

♣ 학교에서는 국어시간에 한글 자·모음을 체계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도합니다.

♣ 입문기에는 무리한 경쟁형 쓰기 활동 대신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게 지도합니다.

♣ 받아쓰기와 알림장 지도시기와 방법은 학급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맞춰 담임교사의 판단에 따라 무리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교육해 나갑니다.

♣ 과도한 한글 선행학습, 수준에 맞지 않는 책을 억지로 읽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.

♣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글자와 책에 흥미를 갖도록 꾸준히 책을 읽어주시면 좋습니다.

♣ 저학년 학생들은 책 읽어주는 것을 좋아하고, 어휘력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.

♣ 부모님의 좋은 읽기 습관이 아이들의 좋은 읽기 습관에 영향을 미칩니다.

♣ 그림책, 동시집, 놀이를 통한 자연스러운 한글교육이 평생독자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됩니다.

♣ 1학년 2학기가 끝날 무렵까지 자녀가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한글을 깨치지 못했다면 담임 선생님과 충분히 의논하여 주십시오.

♣ 지능과 다른 활동에 문제가 없지만 글자를 읽고 쓰는 것에 유독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다. 자녀에게 이런 문제점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땐 담임 선생님과 상담해주세요.

♣ 한글을 너무 일찍 깨우친 아이들보다 제때에 깨우친 아이들의 독서력이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. 한글을 단순히 읽을 줄 아는 것을 넘어서 글이 의미하는 것을 알 때 비로소 한글을 깨우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.

2020년 4월 17일

군산나운초등학교장 이 정 수